

학우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도 이제 열흘 남짓 그 꼬리를 남기고, 교정에는 봄빛이 하루가 다르게 더해갑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서서히 개강일정에 적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는 약 한 달 전의 부끄러운 기억을 꺼내어, 학우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지면을 빌렸습니다.

지난 2월 법대 새내기 새로 배움터 둘째 날(27일), 천동의 새터 공연을 끝내고 저희는 법대 학우 여러분께 인사드리기 위해 각 반 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간 반이 법현 2반이었고, 2반 학우 여러분께 문예공연을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는, 정력가(아래 가사 첨부)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그 노래를 알고 있었던 저희 이재중 김다정 박나영 빈지은 네 명은 노래를 불렀고, 알지 못했던 백종혁은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간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 분위기를 저해하고, 불쾌감을 유발한 것에 대해 법현 2반 학우들과 법현인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미 정력가라는 노래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각 반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드리러 갔을 때의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너무 경황없는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새터 공연이 끝나고 긴장이 풀어진 탓인지, 생각의 고삐를 다잡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내기들이 대학과 만나는 첫 행사인 새내기 새로 배움터라는 자리에서, 선배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더더욱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일에 대해, 저희들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 등에 관한 세미나 시간을 갖는 등의 활동으로 스스로를 다잡으려 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학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법현 2반 학우들, 그리고 법현인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력가 가사)

날아가는 새가 왜 떨어지나. 지나가는 여자 왜 쓰러지나. 그것은 바로 정력 정력 때문이야.

뱀 먹어봐요. 뱀 먹어봐요. 우우우우 우우우우

자라 먹어봐요. 자라 먹어봐요. 우우우우 우우우우

물개 먹어봐요. 물개 먹어봐요. 우우우우 우우우우

뱀 자라 물개. 뱀 자라 물개. 뱀 자라 물개. 뱀 자라 물개. 우우우우 우우우우

<진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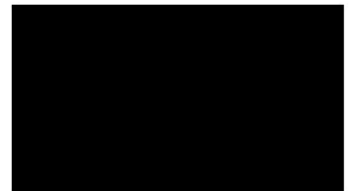
먼저, 피해자와 법현2반 학우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7일 자정 무렵, 새터 공연을 끝낸 천동 00이상 선배들은, 공연을 함께 해준 법대 학우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각 반을 돌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간단한 문예공연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이 때 이야기 되었던 것은 “놀부가”, “사랑타령”, “사랑가(춘향가 中)” 등입니다. 잠깐 “정력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모두들 공연 이후 긴장이 풀어진 마음에서인지, 일단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정력가”와 관련해서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아무래도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 ‘전라도 지방에서 예부터 불리워지던 노래’라는 의견, ‘남근선망을 강요하는 노래’라는 의견 등이 대두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가지지 못하고, 공연이 끝난후의 해방감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처음, 인사를 간 반이 법현 2반이었습니다. 각자 소개를 하고, 2반 학우들이 준 맥주 한 잔씩을 한 후 처음 불렀던 노래는 “사랑타령”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간 반이어서였는지, 저희들도, 2반 학우들도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정력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그 외 2반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00이상 선배로서, 새내기들이 처음 대학생활을 느끼는 ‘새터’라는 자리에서, 단지 공연이 끝난 후의 해방감에만 젖어, 생각을 깊이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천동 후배들, 그리고 피해자와 2반 학우 여러분께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력가”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참 많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를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을 참 어이없게 바라봤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그런 모순된 제 자신에게도 많은 실망을 했고,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단지 그 노래의 분위기(무표정하게 불러야 한다던가, 처음에 아주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등의)만을 생각하고, 그 가사가 주는 불쾌감은 생각하기를 게을리한 새터에서의 스스로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합니다. 또한, “단순히 옛 서민들이 즐겨부르던 노래”와 “우리가 새롭게 약속한 가치와 규범(새터 반성폭력 내규같은)” 사이에서, 그 경계찾기에, 생각의 고삐를 다잡지 못하고 느슨히 한 점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저의 짧은 생각과 행동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후, 저에게 내려지는 어떤 조치도 겹쳐히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법현2반 학우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진술서

우선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무척 반성하고 있습니다.

응당의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건 사람들의 이목이나 동아리 사람들에게 대한 죄스러움이 아닌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자신이 이번 일을 용납못할 것 같고, 오랫동안 상처로 남을 것 같네요.

사건 경위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새터 둘째날 밤. 정확히는 2월 28일 새벽에 저의 동아리인 3명은 공연을 마치고 뒷풀이를 간단히 한 후 각 반방마다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들른 방이 2반이었고, 그 방에서 문예공연을 요구하자 정력가를 불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노래를 부를 의도는 전혀 없었구요, 또한 이 노래를 反여성적인 개념을 담은 채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약간은 들뜬 분위기에서 자제력을 잃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처음 이 노래를 접했을 때 불쾌감을 느꼈었고, 저희 내부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는건 아니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2반 학우들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구요. 정말 머리속여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직후, 잘못된 것을 느꼈었는데, 바로 사과드리지 못한 점도 대단히 죄송하구요.. 하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반성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짧은 생각으로 인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구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구요, 입이 열 개라도 할말 없지만 정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02. 3. 3.

진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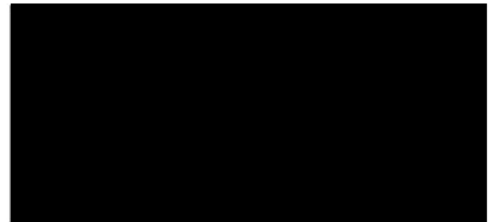
이런 식으로 '가해자'가 되어 진술서를 쓰고, 사과자보를 붙인다는 사실이 조금은 당황스럽고, 부끄러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떤 놀이(노래)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모두가 농담으로 웃어넘길 수 있다면, 같이 즐길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저희가 정력가를 불러서, 2반 친구들 중 몇몇이 불쾌함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정말 사과드립니다...! 동아리 공연을 마치고 들뜬 마음으로 처음 임시간 방이 2반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2반 친구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2반에서 노래를 부른 당사자들은 물론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도 처음 '정력가'를 들었을 때 거북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흥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 저희들의 실수겠지요, 2반에서의 사건 이후로 우리들도 '정말 실수했구나!'라고 느꼈답니다. 이제 3-4일 뒤면 몇 달전부터 준비하던 공연을 하게 되는데 순간의 실수로 동아리 선·후배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력가'가 재밌다고 느낄 정도로 무비판적이었던 생활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노래로 불편함을 느꼈을 2반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진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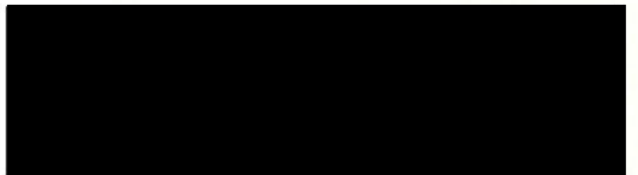
우선 이 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고의로 한 일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 밤 법대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저를 포함한 4명은 캠프 파이어가 끝난 뒤 각 반을 방문하여 인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반방에 들어가 인사할 때 어떤 장기자랑을 할까 준비하였고 이런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던 중에 마침 제가 알고 있던 '정력가'를 부르는데 어쩌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성폭력 내규에 위반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제 나름대로는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을거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는 반에서 호응이 없으면 불러보기로 하였습니다.

방을 나와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2반이었습니다. 2반에 들어가 인사를 한 후 저희가 아는 민요를 몇곡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다지 좋아지지 않고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전 조금 재미있게 그 노래를 소개하려고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전라도 민요인 정력가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 몇몇 사람들이 '어! 내규에 걸리는거 아냐?'라고 말하긴 했지만 술과 분위기에 취한 전 정신이 없이 '아니다, 내규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상대로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다 부르고 난 후 저희는 2반 방을 나왔으며 아무래도 그 내용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력가는 부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다른방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돌아오는 길에 들른 휴게실에서 법대 한 학형이 '어제 그 일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그 학형에게 미안하다고만 말했고 그 후에 어찌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길로 2반 사람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되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때에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서울에 돌아온 후에는 2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개강후에 반방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2반 카페나 커뮤니티가 생기면 그 때 사과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정도까지 커질줄 몰랐습니다. 성폭력 내규를 잘 인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과 언어를 통한 성폭력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저희가 노래를 불렀던 2반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자리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서

신입생수련회에 천둥 공연을 보기위해 27일 저녁에 수련회 장소에 갔습니다. 공연을 보고 천둥 숙소로 배정된 방으로 가서 잠시후 캠프파이어가 끝난 후배들과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후배들이 각 반에 공연 인사를 하러 간다하여 저도 따라가기로 하였습니다. 후배들이 정력가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저는 내용이 좀 걸리긴 했지만 재미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몰랐었고 율동에는 소질이 없는 관계로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흥내를 내려고는 했습니다. 그후로 들른 반에서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날 학교에 일이 있었던 관계로 저는 일찍 그곳을 나왔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야 그 일이 문제시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한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된 입장에서 관찰자의 견지에서 그저 후배들이 노는 것을 지켜봐주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어줄거라는 생각에서 찾아간 수련회였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군요.

이 일로 피해를 입은 분과 2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직접 만나 뵙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진술서

새터 둘째날(27일) 저녁, 2반에서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며 놀고 있던 때였습니다. 천둥 소속의 5명이 홍보와 인사를 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01학번이라고 소개한“-랑” 회명의 여자 3명과, 자세한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남자 2명으로 구성되어있었는데, 실제로 자신들이 말한 학번보다는 고학번인 듯 싶습니다. 호응이 썩 뜨겁지 않자, 어색해진 분위기를 “띄워” 보기 위해서였는지 마지막으로 “정력가”를 부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력가”라는 제목에 움찔했으나, “전라도지방 구전민요로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크게 저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하길래 “내가 생각하는게 아닌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들었지요. 가사는 “날아가던 새가 왜 떨어지나, 지나가던 여자 왜 쓰러지나 아- 바로 정력, 정력 때문이다..” 뒤에 각각 “뽕 먹어봐요.” “자라먹어봐요.”, “물개 먹어봐요”라는 가사가 붙어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성적인 내용은 없었으나, “그렇다면 내가 지나가다 ‘정력’ 때문에 쓰러지는 여자 中 하나란 말인가.” 싶은 생각에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해 졌고 모두 재미있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술을 주로 마시고 있던 한 집단은 따라하려는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둥”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이들이 나가고 난 후에 따라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은 막아보려고 했는데, 천둥이 나간 직후에 법대 학생회장, 부회장 등이 들어오게 되어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싸리~)



<잔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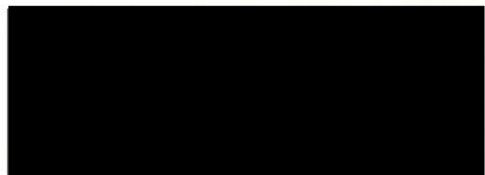
먼저, 피해자아 법원 2반 학우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7일 자정무렵, 세터 공연을 끝낸 천등 00 이상 선배들은, 공연을 함께 해준 법대 학우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각 반을 돌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간단한 문예공연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이 때 이야기 되었던 것은 "놀부가", "사랑타령", "사랑가(준항가中)" 등입니다. 잠깐 "정려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반 흥미를 이루지 못한 채, 모두들 공연 이후 긴장이 풀어진 마음에서인지, 일단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정려가"와 관련하여서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아무래도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 '전라도 지방에서 옛부터 불려왔던 노래'라는 의견, '남군 선망을 강요하는 노래'라는 의견 등이 대두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로 가지지 못하고, 공연이 끝난 후의 해방감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처음, 인사를 간 반이 법원 2반이었습니다. 각자 소개를 하고, 2반 학우들이 준 매주 한 잔씩을 한 곡 처음 불렀던 노래는 "사랑타령"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간 반이어서였는지, 저희들도, 2반 학우들도 어색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정려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아 그의 2반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00 이상 선배로서, 새내기들이 처음 대학생활을 느끼는 '새터'라는 자리에서, 단지 공연이 끝난 후의 해방감에만 젖어, 생각을 감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천등 후배들, 그리고 피해자아 2반 학우 여러분께도 창으로 부끄럽습니다.

"정려가"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참 많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를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을 참 어이없게 바라봤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그런 모습인 제 자신에게도 많은 실망을 했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단지 그 노래의 분위기(무표정하게 불려야 한다던가, 처음에 아주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등의.)만을 생각하고, 그 가사가 주는 불쾌감을 생각하기를 게을리한 새터에서의 스스로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합니다. 또한, "단순히 옛 서민들이 즐겨부르던 노래"와 "우리가 새롭게 약속한 가치와 규범.(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사이에서, 그 경계짓기에, 생각의 고삐를 다잡지 못하고 느슨히 한 점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저의 짧은 생각과 행동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후, 저에게 내려지는 어떤 권지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법원 2반 학우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것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처분도 당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건 사람들의 이목이나, 동아리 사람들에게 대한 괴로움이 아닌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자신이 이번 일을 용납할 것 같고, 오래동안 사처로 남을 것 같은데.

사건 경위에 대해 말할 드려지면, 새로 등재날 밤, 정화일은 오후 28일 새벽에.

저의 동아리인 30명은 공연을 마치고, 득표율을 기반으로 한 후 각 반반마다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들른 반이 2반이었고, 그 방

에서 문에 공연을 요구하자 조영가를 불러줍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노

래를 부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노래를 반영적인 개념을

대신 채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야간은 들뜬 분위기에서.

자제력을 잃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처음 이 노래를 접했을 때, 흥취를 느꼈었고, 저희 내부에서도 이

노래를 부른 건 아니다... 라는 느낌이 있었는 바, 2반 학생들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구요. 정말 머리 숙여 반성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직후, 잘못된 것을 느꼈었는데, 바로 사과드리지 못한 점도 대

상이 되구요... 하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반성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시 한번 잘못은 생각으로 인한 행동으로 책임을 지고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구요. 앞으로 이런 일 재발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지를 잘못에 대해서는 차후를 지도록 하겠구요. 일이 열개라도 하마는 없지만.

정말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우선 이 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근으로 한 일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 밤 밤새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저를 포함한 4명은 캠프
파이어가 끝난 뒤 1박 2일 방문하여 인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밤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반방에 들어가 인사할 때 어떤 장기자랑을 할까 준비하였고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던 중에 마침 제가 알고 있던 '정력가'를 부르
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성폭력 내규에 위반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제 나름대로는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을거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는 방에서 호응이 없으면
불러보기로 하였습니다.

방을 나와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2반이었습니다. 2반에 들어가 인사를
한 후에 저희가 아는 민토 명곡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다지 좋아지지 않고 우리도 어떻게 하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전 조금 재미있게 그 노래를
소개하려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라도 민요인 정력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의 '어! 내규에 걸리는거 아냐?'라고 말하긴 했지만 술라
분위기에 취한 전 정신이 없이 '아니다, 내규에 걸리지 않은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곤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상대로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몇명 있었습니다. 다 부르기 난 후 저희는 2반방을
나왔으며 아뭏게로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 정력가는 부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다른 방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돌아오는 길에 들른 휴게실에서 밤새 한 학행이 '어제 그 일로
신경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그 학행에게
미안하더라도 말했고 그 후에 어찌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일로 2반 사람들에게 가서 미안하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되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때에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서둘러 돌아온 후에는 2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개강 후에 반방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2반 카레나 커뮤니티가 생기면 그 때 사과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가 되어 진술서를 쓰고, 사과장문을 붙인다는 사실이
조금은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떤 놀이(연대) ~~까지~~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모두가 농담으로 웃어넘길 수
있다면, 같이 즐길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저희가 정령가를 불러서, 2반 친구들 중 몇몇이 불쾌함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정말 사과드립니다...! 동아리 공연을 마치고 들뜬 마음으로

처음 인사한 방식이 2반이었었는데 본의 아니게 2반 친구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2반에서 노래를 부른 당사자들은 물론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도 처음 '정령가'를 들었을 때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흥이 꺾여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지 못한 것이

저희들의 실수겠지요. 2반에서의 사건 이후로 우리들도 '정말 실수했구나!'

라고 느꼈답니다. 이제 3-4일 뒤면 몇 달 전부터 준비하던 공연을 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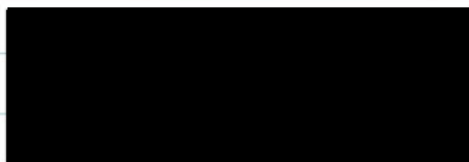
되는데 순간의 실수로 동아리 선·후배들이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령가'가 재밌다고 느낄 정도로 무비판적이었던

생활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노래로 불편함을 느꼈을

2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장문서.

신앙생활 수련회로 기독교 회개들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교회로 내려가 수련회 장면에
가장했다. 공연을 하고 기독교 회개들로 인해 받은 반응으로 가서 장서복 카운터라미어가
클레드 드 후베르와 함께 매주를 마셨다. 술은 마시다가 후베르가 5시에
공연이 나를 하러 간다하여 저를 따라가기를 하였다. 후베르가 공연가는 술이
하는 것은 내내 내용이 좀 걱정이긴 하지만 재미있었기 때문에 라도 이해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그 노래를 목격한 유동에도 신적이 없는 상태로 같이
하자는 뜻이 없었다. 따라하려니 했는데 잘 안되어간다. 그후로 둘은 밤이되면
그 노래를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안고 있었다. 다음날 함께 악이 악했던
당계를 만나 그 곳은 내내인 악주인 것도 후베르 (정확히 가지는 나지
안다) 그 악이 무척 리듬감 있는 악이 되었다.

악주가 무척이었던 간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한 행동은
적었다는 생각이었다. 시베르 악장이 악장의 정제에서 그의 후베르의
공연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 주면서
(악장이) 악장은 수련회였는데 불미스러운 악이 생겼었다.

이 악으로 악장은 악을 부어 그 악은 여러분에게 지상으로 사바드한다. 기회가
생된다면 악장 악장을 사바드 악장을 드린 악장.

센터 등재날 (21명) 저녁, 2반에서 계명을 하거나 숙운 마시며
 놓고 있던 때였습니다. 천둥 소리의 5명이 ~~공~~ 홍보와 인사를
 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이학번이라고 소개한 "강" 회장의
 여자 거명자. 자세한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남자 2명으로
 구성되어있었는데, 실제로 자신들이 말한 학번보다는 1학번인듯 했습니다.
 회장이 석 뜨겁지 않자, 어색해진 분위기를 "뜨위" 보기 위해서였는지
 마지막으로 "정리가"를 부르는 가갸다고 했습니다. "정리가" 라는
 제목에 음절했으나, "전라도지방 구전민요로 ~~새~~ 센터 반장정리
 내규에 크게 저촉되지는 않은 것"이라는 모지의 말을 하길래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들었지요.
 가사는 "날아가던 새가 왜 떨어지나, 지나가던 여자 왜 소리지나
 마- 바로 정리가, 정리가때 문이다" ~~새~~ 뒤에 각각 "뽕 먹어봐요."
 "자라먹어봐요.", "목개 먹어봐요" 라는 가사가 붙어있었습니다.
 노골적 ~~음~~으로 성적인 내용은 없었으나, "그렇다면 내가
 지나가다 '정리' 때문에 쓰러지는 여자 중 하나란 말인가."
 실은 생각에 모욕감과 복래감을 느꼈습니다.
 분위기를 "화기애애"해 줬고 모두 재미있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술은 주로 아치고 있던 한 집단은 따라하려는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복래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둥"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마치 못했지만 ~~누군가~~ 이들이 나가고 난 후에 따라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은 막아보려고 했는데, 천둥이
 나간 직후에 ~~학생~~ '학생'회장, 부회장 등이 들어오게 되어
 더이상 '학산'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싸리~)